

부사 ‘都’의 기능 및 ‘都’자 강조 구문 고찰

金鍾赫*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부사 ‘都’의 의미 및 기능
 - 1) ‘已經’의미와 ‘都’의 상관관계
 - 2) ‘都’의 기능
3. ‘都’와 ‘連’자문
 - 1) 전형적인 ‘連’자문과 ‘都’
 - 2) 비전형적인 ‘連’자문과 ‘都’
4. ‘都’와 ‘把’자문 및 ‘比’자문
 - 1) ‘都’와 ‘把’자문
 - 2) ‘都’와 ‘比’자문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都’는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사 중의 하나이고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都’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 (1) ‘都’의 의미 및 의미 변화의 변천과정
- (2) ‘都’의 사용 제한 조건 및 학습자의 습득 시 착오현상
- (3) ‘連’자문 등과 같은 ‘都’와 관련 있는 구문 연구 등

* 大田大學校 中國言語文化學科 助教授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都’의 의미에 관해서 ‘범위를 총괄하거나 강조를 나타낸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대부분 공통적인 견해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都’가 ‘已經(이미, 벌써)’의 의미 및 기능을 나타낸다는 의견에는 학계에서 아직 일치된 주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都’의 의미 변천과정에 관해서는 학자들은 대부분 ‘連’자문의 의미 변천이 ‘都’의 기능과 의미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都’가 ‘범위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강조’와 같은 기능을 보유하는 변천 과정이 현대중국어 ‘連’자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는 주장에는 본인도 이견이 없지만, 사실 이와 같은 기능은 다른 구문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把……都……’, ‘比……都……’등 구문 내의 ‘都’는 모두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처치’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把’자문이나 비교의 의미를 나타내는 ‘比’자문과는 통사적인 기능과 의미에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은 부사 ‘都’가 ‘已經’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논점에서 출발하여 ‘都’의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는 ‘강조’ 기능이 비전형적인 ‘把’자문과 ‘比’자문 의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예문의 분석을 통하여 증명하고 고찰해본다.

2. 부사 ‘都’의 의미 및 기능

1) ‘已經’의 의미와 ‘都’의 상관관계

주지하다시피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실사와 대조적으로 부사를 포함한 허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는 공허하고 문법적인 기능만을 보유하여 개괄하기가 쉽지 않다. 『現代漢語詞典』과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부사 ‘都’의 의미를 각각 네 개와 세 개로 나열하고 있다. ‘(總括)범위의 총괄’, ‘(甚至)

심지어, ‘(已經)이미/벌써’ 세 개 의항은 두 사전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現代漢語詞典』에서는 ‘是’와 함께 사용하여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의항이 있지만 『現代漢語八百詞』에서는 이와 같은 용법을 ‘총괄’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으로 보고 있다. ‘총괄’의 의미를 나타내는 ‘都’는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일컫는 범위부사이고 ‘심지어’의 의미는 강조를 나타내는 어기부사이다. 위 두 종류의 사전과 다수의 학자들이 ‘都’는 ‘已經’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都’의 허화나 시간부사의 변천과정을 고찰해보면 일부 문장의 ‘已經’의 의미는 ‘都’와는 무관함을 증명할 수 있다.

‘都’가 ‘已經’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예문에서는 통상적으로 ‘了’와 함께 사용되어 ‘都……了’구문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 a. 都十二点了, 還不睡? (『現代漢語八百詞』)
b. 벌써 열두시인데 아직 안자는 거야?
- (2) a. 我都快六十了, 該退休了。(상동)
b. 이미 예순이 다 되어 가는데 퇴직해야지.
- (3) a. 飯都凉了, 快吃吧! (상동)
b. 밥이 다 식겠어, 빨리 먹어.

예문(1), (2), (3)의 ‘都……了’구문은 모두 ‘已經’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세 예문은 각각 ‘已經十二点了’, ‘我已經快六十了’, ‘飯已經凉了’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都’=‘已經’의 공식이 성립될 수는 없는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예문들의 ‘都’는 ‘已經’의 의미보다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양자는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都……了’구문에서 ‘都’를 생략해도 이 구문은 여전히 ‘已經’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都’를 생략한 ‘十二点了’, ‘我快六十了’, ‘飯凉了’ 예문 또한 여전히 ‘이미 그렇다’라는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都……了’구문이 ‘已經’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都’의 존재 이유가 아니고 구문 내 또 다른 요소인 어기조사 ‘了’가 해당 의미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李訥

(1994)등의 연구에 따르면 문미 어기조사 ‘了’는 ‘已然体’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사건의 현재와 연관됨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구문에 들어가는 성분이 명사구일 경우 ‘順序(순서)’의 의미를 나타내며 시간, 직책 등의 낱말이 출현한다. 예를 들어, ‘都21世紀了。’, ‘都處長了。’

또 다른 이유는 ‘都……了’와 ‘已經……了’의 통사적 기능에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什麼時間’, ‘幾點了’등의 질문에 호응하는 대답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 問: 幾點了?

答: 十二點。 / 十二點了。 / ?已經十二點了。 / * 都十二點了。

위 예문의 대답 중 ‘十二點。 / 十二點了。’는 ‘幾點了?’에 통상적으로 호응하는 대답이지만, 낯선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는 ‘已經十二點了。’의 대답에서 반드시 ‘十二點了’에 악센트를 두어야 한다. ‘都十二點了。’는 일반적으로 ‘幾點了?’와 같은 물음의 대답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다수의 사전이나 연구 결과에서 ‘都’가 ‘已經’의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都’와 ‘已經’이 한 문장 내에서 공존하는 현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 a. 婚禮的晚上, 老漢問這個女人, “咱倆都已經結了婚了。你就給我說實話吧, 你多大歲數?”
 b. 결혼식 날 저녁 老漢은 이 여자에게 물었다. “우리 둘은 이미 결혼을 했으니 사실대로 말해 주시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 (6) a. 是早上8點鐘北京飛往巴黎的飛機, 但是我遲到了, 我起床的時候都已經8:50了。
 b. 아침 8시 베이징에서 파리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지각을 했어. 내가 일어났을 때 이미 8시50분이었어.
- (7) a. 我趕緊勸她: “哦, 那個孩子呀太不幸啦, 哈, 生下來之后就死了, 已經都埋了。您甭難過, 啊, 過過您再要一個得了。”

- b. 나는 얼른 그녀를 타이르며 “그 아이 참 불행하네,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 이미 묻었으니 슬퍼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 더 낳으시면 되잖아요.”

중국어의 문법화 과정에서 의미가 비슷한 두 낱말이 連用되는 疊加(중복) 현상이 존재하지만 위 세 예문 중의 ‘都’와 ‘已經’ 두 낱말의 기능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疊加라고 볼 수 없다. 현대중국어에서 ‘已經’은 ‘已然’의 의미를 지니는 시간부사이고 동작이나 변화가 완성되거나 어느 정도에 도달함을 뜻한다. 하지만 ‘都’의 주요 의미는 ‘已然’이 아니고 화자가 말하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다. 예문(5) ‘都已經結了婚了’는 결혼 후에는 부부 간에 못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예문(6) ‘都已經8:50了’는 화자가 기상한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 이외에도 시간이 너무 늦었다거나 혹은 이렇게 늦게 일어나서 비행기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다는 강한 주관적 후회를 나타냈다. 예문(7) ‘已經都埋了’는 이 아이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마무리 됐으니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주관적인 설득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세 예문의 ‘都’를 모두 생략한다 해도 ‘已經’의 의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표현에 가까울 것이다.

위 예문들의 분석을 통하여 ‘已經’의 의미는 ‘都’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都’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 혹은 다른 문법적 요소가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都’는 근본적으로 ‘已經’의 의미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범위를 총괄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로 본 논문에서 ‘都₁’로 표기한다. 둘째, ‘都₁’의 의미 이외의 다양한 구문 내에서 강조의 기능을 지니며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都₂’로 표기한다.

2) ‘都’의 기능

‘都’의 ‘범위를 총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 학계에서 이 용법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張誼生(2003)등은 총괄 대상의 可分配性 및 의미의 前指性등을 주장하며 ‘都’의 사용 제한 조건을 분석하였고, 張亞軍(2002)은 총괄 대상은 반드시 중간量 이상(다수, 대다수, 절대다수)을 차지해야함을 주장하며 한층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都’의 화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용법은 범위를 총괄하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파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용법은 ‘連’자문의 형성과 변천과정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다가 다른 구문으로 확산된 것이다.

범위를 총괄하는 것은 중국어의 ‘量’의 표현과 관련이 있다. 양은 하나의 범주로서 수량을 나타내고 즉, 수량사로 표현하는 양이고 시간의 양, 정도의 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양은 또한 객관적인 양, 주관적인 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양이라 함은 사물, 동작 등이 나타내는 양이다. 예를 들어, ‘三個人, 四個小時, 來過五次, 去過六回’. 주관적인 양은 화자의 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말하고 주관적인 양은 또한 주관적 대량과 소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張亞軍(2002)은 분석하고 있다. 주관적인 양과 객관적인 양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화자의 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결정되며 ‘都’의 두 가지 의미는 양의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충분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다.

범위를 총괄하는 ‘都’는 주로 객관적인 서술을 표현하며, ‘所有, 全部, 任何’ 등의 낱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모든 사물, 즉 ‘畧量’을 나타내므로 ‘都’와 종종 함께 출현한다. 물론 전체양의 긍정과 부정 형식이 모두 가능하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8) a. 所有的事情都必須自己親自做。
b. 모든 일은 반드시 직접 한다.
- (9) a. 任何人都不能例外。
b.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 (10) a. 他哪兒都想去。
b. 그는 어디든 가고 싶어 한다.
- (11) a. 這件事誰都不能說出去。

- b. 이 일은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된다.

예문(8), (10)은 전체 양의 긍정이고 예문(9), (11)은 전체 양의 부정이다. 현대중국어에서 전체 양을 부정하는 또 다른 표현은 '—+ 양사+ ……+ 都+ 부정형식VP' 형식이 있다.

- (12) a. 一个人都沒見到。
 b.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13) a. 那个地方, 他一次都沒去過。
 b. 그 곳에 그는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예문(12), (13)의 '一个人, 他'는 모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일 개체이므로 예문의 '都'는 범위를 총괄할 수 없는 '都₂'이다. 그러나 이 경우와 '全部, 任何'를 사용하여 전체를 부정하는 형식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부정의 방식이 다를 수 있다. '全部, 任何'를 사용한 전체부정은 직접적인 부정이므로 '都'는 범위부사에 속한다. 그러나 '—+ 양사+ ……+ 都+ 부정형식VP'은 극소량의 부정을 통하여 전체량을 부정하는 목적에 도달한다. 심지어 '半'을 사용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예문을 살펴보자.

- (14) a. 桶是空的, 連半條魚都沒有。
 b. 통은 비어 있고 반 마리의 생선도 없었다.
 (15) a. 她表現了更多的熱情和溫暖, 連半句責備的話都沒有。
 b. 그녀는 더 많은 친절함과 따뜻함을 보여줬고 반 마디의 질책도 하지 않았다.

예문(14), (15)의 '半條魚, 半句話' 실질적인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량을 극대화한 것이다. 예문(14)에서, 낚시를 가면 적어도 한 마리라도 잡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주관적인 희망과 현실 간의 큰 차이를 '都₂'에서 보여주고 있다.

언어의 주관화라는 것은 화자는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동시에 본인의 입장, 태도, 감정을 표명하려 한다. 이런 주관성은 언어의 특정한 형식으로 표현된다.¹⁾ 현대중국어의 ‘都₁’와 ‘都₂’의 차이는 표현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다. ‘都₁’은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여 반드시 객관적인 현실 혹은 정해진 기준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都₂’는 주관성의 표출로서 화자가 서술한 내용과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상관관계에 있다.

3. ‘都’와 ‘連’자문

현대중국어 ‘都₂’의 형성은 ‘連’자문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白梅麗(1983), 崔永華(1984), 崔希亮(1990, 1993), 周小兵(1990)등. 劉丹青(2005)은 ‘連’자문‘을 전형적인 連’자문‘과 비전형적인 連’자문‘으로 구분하고 후자가 더 고정적인 구문에 가깝다는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 전형적인 ‘連’자문‘과 ‘都’

‘連’자문‘의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탄생 초창기에는 ‘連’자는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통사적 강제성이 있었지만 ‘都’는 상대적으로 출현 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6) a. 大叫一聲, 急用手拔箭, 不想連眼珠拔出, 乃大呼曰: “父精母血, 不可棄也!” (『三國演義』)
 b. 크게 소리 지르며 급히 화살을 빼내려다 눈알과 같이 빼내고 싶지 않아 이내 크게 소리 지르길: “부모가 주신 육체를 어찌 버리겠는가!”

1) 沈家煊 「語言의 ‘主觀性’和‘主觀化’」, 『外語教學與研究』, 2001年 第4期

- (17) a. 這還了得! 連這個不知, 怎能作得長遠! (『紅樓夢』)
 b. 너무 지나치군, 이것도 몰라서 어찌 멀리 내다볼 수 있겠는가!

위 두 예문에서 ‘連’자 뒤에 ‘都/也’가 출현하지 않았고, 예문(16)의 ‘連’은 ‘連帶, 連同’의 비교적 실질적인 의미가 두드러져 아직 허화되기 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문(17)은 ‘連’뒤의 명사구가 현대중국어 ‘連’자문의 특징과 일치한다.

- (18) a. 合家子連太太宝玉都有了不是, 這會子你又填限去了。(『紅樓夢』)
 b. 온 가족 중에 太太와 宝玉조차도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 너는 또 희생이 되는거야.
 (19) a. 衆人有上牆的, 有上房的。向四處觀看, 連一個人影都沒有。(『三俠劍』)
 b.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이는 담 위에 올라가고 어떤 이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니 한 사람의 그림자조차도 없었다.

예문(18), (19)는 ‘連’과 ‘都’가 함께 출현한다. 예문(18)은 ‘連’을 사용하여 ‘合家子’ 중 가장 특별한 지위를 가진 ‘太太’와 ‘宝玉’를 가리키면서 ‘都₁’와 ‘都₂’의 과도기적인 특징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예문(19)의 ‘連’자문은 현대중국어와 다르지 않으므로 ‘都₂’로 이해할 수 있다.

전형적인 ‘連’자문인 ‘連+NP+都/也+VP’중의 ‘NP’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주관적으로 정한 등급의 서열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위치에 있다. 일부 사전에서 ‘都’의 의미 중 하나를 ‘甚至’로 정의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連’자문은 ‘都₁’이 ‘都₂’로 허화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비전형적인 ‘連’자문‘과 ‘都’

비전형적인 ‘連’자문‘의 형식은 전형적인 ‘連’자문‘과 일치한다. 그러나 ‘連’ 뒤에 등장하는 ‘NP’의 성격은 유사한 등급으로 볼 수가 없다. 劉丹青(2005)이 귀납한 다섯 종류의 유형을 살펴보자.²⁾

- (20) a. 結婚一年了, 感情反而更好。連架也不吵了。
 b. 결혼 한지 일 년이 지났는데 정은 오히려 더 깊어져 말다툼조차도 하지 않는다.
- (21) a. 他們東倒西歪地席坐于地, 連東西也忘記收拾了。
 b. 그들은 여기 저기 쓰러져 앉아서 물건조차도 챙기는 걸 잊었다.
- (22) a. 那段时间簾雨天天天在家做家务, 出門連‘的士’都舍不得打。
 b. 그 당시 簾雨는 매일 집에서 집안 일만 하면서 외출할 때 택시조차도 아까워서 타지 않았다.
- (23) a. 他才覺出冷來, 連嘴唇都微微地顫着。
 b. 그는 비로소 추위를 느끼고 입술마저도 조금씩 떨고 있었다.
- (24) a. 他們有鑰匙, 連門都不敲就進來了。
 b. 그들은 열쇠가 있어서 문도 노크하지 않고 들어왔다.

劉丹青은 비전형적인 ‘連’자문‘의 특징을 위와 같이 분류하며 ‘連’자문‘에 대한 진일보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형적인 ‘連’자문‘은 예상과 결과 간의 큰 차이(反差性)를 강조하고 ‘連’ 뒤에 등장하는 ‘NP’를 통한 강조를 표현하지만, 비전형적인 ‘連’자문의 강조 기능은 대부분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습관이나 인지상정 혹은 상식과 크게 다른 예상하지 못한 ‘反常性(비정상성)’을 표현하고 ‘NP+VP’ 전체의 현상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문에서 보면, 결혼 전에는 자주 다녔는데 결혼 후에는 싸우지 않는다거나, 예전에는 자주 택시를 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連’자문은 전형적인 ‘連’자문의 기초 하에서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전형, 비전형을 막

2) 劉丹青 「作爲典型構式的非典型‘連’字句」, 『語言教學與研究』, 2005年 第4期

론하고 ‘連’자문‘ 기능의 공통점은 화자의 강한 주관적인 인식이고 ‘都₂’ 혹은 ‘也’는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필수요소이다.

4. ‘都’와 ‘把’자문 및 ‘比’자문

‘都₂’의 강조 기능은 비전형적인 ‘連’자문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都₂’가 ‘連’자문에서의 통사적 기능이 점차적으로 고정화 되면서 강조의 의미는 다른 구문에서도 출현하며 동일하게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표현하게 된다.

1) ‘都’와 ‘把’자문

“‘把’자문은 초기에 학계에서는 ‘處置式’으로 논의가 진행되었고, ‘把’자가 소개하는 것은 ‘做’의 행위, 일종의 시행(execution)이며 처치이다.”³⁾ 라는 주장도 있었다. ‘把’자문은 동작의 주체가 동작의 대상에 대하여 모종의 처치를 진행하는 구문이다. ‘把’자문의 ‘처치성’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능이지만 일부 ‘把’자문은 ‘처치’의 개념으로 해석하기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把’자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정의가 필요했다. 邵敬敏(2000)은 ‘把’자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把’자문은 모종의 동작이나 원인으로 인하여 대상이나 주체로 하여금 모종의 결과를 얻게 하거나 동작이 모종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把’자문과 ‘都’는 원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지만 ‘都₁’의 ‘前指性’ 의미 특징으로 인하여 ‘把’자문의 주어 혹은 목적어는 ‘都₁’의 출현에 영향을 주어 범위를 총괄하게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5) a. 夜里呢, 她的佣人又把她的东西偷走了, 就留着一个珍珠衫。

3) 王力『中國語法理論』(上), 中華書局, 1954年

- b. 밤에 그녀의 하인은 또 그녀의 물건을 훔쳐갔다, 진주 셔츠 한 개만을 남겨둔 채.
- (26) a. 我趕緊把所有的四個門都鎖好, 加大油門, 開了几百公里都不敢停。
- b. 나는 얼른 모든 차문을 잠그고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 몇 백 킬로미터를 감히 멈추지 못하고 달렸다.

위 두 예문의 ‘都’는 ‘她的東西’와 ‘所有的四個門’을 총괄하고 다른 구문의 ‘都’용법과 동일하며 이 경우의 ‘都’는 일반적으로 악센트를 주어 읽는다. ‘把’자문에 ‘都₂’가 출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 극단적인 강조를 표현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7) a. 有群眾拿着刀子要跟院領導玩命, 把警察都給請來了。
- b. 어떤 군중은 칼을 들고 간부와 목숨 걸고 싸워서 경찰까지 불러오게 했다.
- (28) a. 思戴德辦公室的門總是開着, 他甚至把門鎖都拆掉了。
- b. 思戴德사무실의 문은 늘 열려 있었다. 그는 심지어 자물쇠를 해제하기도 했다.

예문(27)의 ‘把警察都給請來了’는 화자가 여기기를 이와 같은 군중의 행위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문(28)의 ‘把門鎖都拆掉了’는 화자가 思戴德의 철저하게 오픈된 행위를 강조하며 ‘甚至’가 이미 행위의 극단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만약, 두 예문의 ‘都’를 생략한다면 서술적인 의미만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문을 살펴보자.

- (29) a. 隊員見了她, 如遇救星, 把心都掏給她了。
- b. 대원들은 그녀를 보고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 같이 마음까지 꺼내 주었다.
- (30) a. 我不該讓你去, 害得你差点把小命都丟了。
- b. 내가 너를 보내는 게 아닌데,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 했다.
- (31) a. 你看你, 差点把我的魂都嚇飛了。

- b. 봐라,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내 혼까지 날아갈 뻔 했다.

위 예문들의 '把'자문은 모두 지나친 과장된 표현으로 강조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把'자문은 대부분 일반적인 'SVO'문장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화자가 본인이 말한 내용에 대하여 주관적인 인식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와 근거로 인하여 '都'가 포함된 '把'자문은 대부분 비교적 자유롭게 '連'자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2) '都'와 '比'자문

두 항목을 비교하는 '比'자문의 기본 형식은 'A比B+C'이다. A와 B는 비교 항목이고 C는 비교의 결과이다. 전형적인 '比'자문은 A와 B사이에 반드시 서로 비교할 만한 특징을 갖추어야하고 결과인 C는 일반적으로 형용사 혹은 소수의 동사형 낱말이 출현한다. C앞에 정도를 나타내는 '更, 還, 微微'등의 부사가 출현하기도 하는데 '都₁', '都₂' 또한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

- (33) a. 今年的產量比往年都高。
 b. 금년의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높다.
 (34) a. 在學習上, 他比你們都刻苦。
 b. 공부하는데 그는 너희들보다도 열심이다.

예문(33), (34)의 '都'는 모두 범위를 총괄하는 '都₁'이다. '往年'은 금년 이전의 매년을 가리키고, '你們'은 '他'이외의 매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都₂'가 '比'자문의 비교 결과를 표현할 경우는 전형적인 '比'자문과는 의미와 기능상 분명한 차이를 드러낸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5) a. 我不會養花, 這東西只長枝叶不見花。瞧, 它長得比你都高了。
 b. 나는 꽃을 키울 줄 모른다, 가지와 잎만 자라고 꽃이 피지 않으니. 봐라, 너보다도 높게 자랐잖아.

- (36) a. 兩天不見拉貨車進廠，工人比廠長都着急。
 b. 이틀 동안 물건 실은 차가 공장에 들어오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공장장보다도 조금해했다.
- (37) a. 你真有福气，攤上這麼个好女婿，比儿子都强。
 b. 당신 정말 복이 많네요, 이렇게 훌륭한 사위를 얻다니, 아들보다도 낫네요.

위 예문들은 각각의 비교 대상들이 분명하지만 비교 자체가 주요 목적이 아니고 ‘比’자문의 형식으로 A가 보유한 모종의 특징 C의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유형 ‘比’자문의 B는 A의 특징을 설명하는 비유 대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문을 보자.

- (38) a. 我摸一下自己的臉，快沒了，瘦得眼珠子比窩窩頭都大。
 b. 내 얼굴을 만져보니 눈알이窩窩頭보다도 크게 말라있었다.
- (39) a. 越有錢的越能掙錢，越是沒錢，掙個錢比吃屎都難。
 b. 돈 있는 사람일수록 돈을 벌 수 있지, 돈이 없을수록 돈 버는 건 똥을 먹는 거보다도 어렵다.

예문(38), (39)의 과장된 묘사는 더욱 두드러진다. 만약, ‘都’를 생략한다면 이 예문들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문장일 것이다. 이와 같은 ‘比’자문의 B는 어떤 경우는 현실 세계 혹은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정하여 극단적인 강조의 효과를 표현하기도 한다.

- (40) a. 反正你對誰的話都听，尤其趙辛楣的話比圣旨都灵，就是我的話不听。
 b. 어째든 너는 누구의 말도 듣고 특히 趙辛楣의 말은 성지보다도 효과가 있으면서 내 말만 안 듣는구나.
- (41) a. 舅舅是中國通，比上帝都更了解中國人。
 b. 외삼촌은 중국통이야, 하느님보다도 중국 사람을 더 잘 알고 있어.

예문(40), (41)은 비교 대상을 '宗旨, 上帝'로 정하면서 A와 B의 비교에 목적이 있지 않고 B의 사회, 역사, 문화 속에서의 역할과 가치를 이용하여 A를 강조하고 있는 '都₂'이다. '比'자문의 '都₂'는 '把'자문, '連'자문과 동일하게 약센트를 주면 안 되고 단지 가볍게 읽어야 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5. 나가는 말

현대중국어 부사 '都'의 기본 의미는 두 종류가 있다. '都₁'은 범위부사로서 정해진 범위 내의 사물 혹은 현상을 총괄하여 공통적으로 보유한 동작이나 행위 혹은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都₂'는 '都₁'의 의미의 변천과정의 허화와 문법화 현상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都₂'의 주요 기능은 '강조'이며, 모종의 행위, 현상, 속성의 비정상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기대와 현실과의 큰 차이를 표현한다. '都₂'는 또한 화자의 사물의 양, 시간의 양, 정도의 양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都₁'는 객관적인 서술을 표현하지만 '都₂'는 중국어의 주관적 표현 방법 중의 하나이다. '都₂'는 현대중국어 '連'자문에서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낼 뿐 만 아니라 '把'자문, '比'자문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나타내어 '把'자문의 전형적인 처치 기능이나 '比'자문의 비교기능을 약화시켜 문장의 과장과 묘사의 효과를 표현한다.

參考文獻

- 王力(1954), 『中国语法理论』(上), 中华书局, 1954年
- 白梅丽(1981), 「汉语普通话的“连……也 / 都……”」, 『国外语言学』 1981年 第3期
- 崔永华(1984), 「“连……也 / 都……”句式试析」, 『语言教学与研究』 1984年 第4期
- 崔希亮(1993), 「汉语“连”字句的语用分析」, 『中国语文』1993年 第2期
- 崔希亮(1990), 「试论矣连形式“连……也 / 都……”的多重语言信息」, 『世界汉第3期
- 殷志平(1995), 「“X比Y还W”的两种功能」, 『中国语文』1995年 第2期
- 刘丹青、徐烈炯(1998), 「焦点与背景、话题及汉语“连”字句」, 『中国语文』1998年 第4期
- 刘丹青(2005) 「作为典型构式的非典型“连”字句」, 『语言教学与研究』, 2005年 第4期
- 沈家煊(2001), 「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 2001年 第4期
- 张亚军(2002), 『副词与限定描状功能』, 安徽教育出版社, 2002年
- 张谊生(2003), 「范围副词“都”的选择限制」, 『中国语文』2003年 第5期
- 张谊生(2005), 「副词“都”的语法化与主观化——兼论“都”的表达功能和内部分类」, 『徐州师范大学学报』2005年 第1期
- 周小兵、王宁(2007), 「与范围副词“都”有关的偏误分析」, 『汉语学习』 2007年 第1期
- 高顺全(2009), 「“都”、“也”、“又”主观化用法的异同」, 『淮海工学院学报』2009年 第2期
- 黄文枫(2010), 「“都”量化副词现象研究」, 『世界汉语教学』2010年, 第3期
- 蒋静忠、潘海华(2013), 「“都”的语义分合及解释规则」, 『中国语文』 2013年 第1期
- 李讷、S.A.Thompson、R.M.Thompson(1994), 「已然体的话语理解:汉语助词

“了”，戴浩一、薛凤生主编『功能主义与汉语语法』1994年 北京语言学院出版社

『现代汉语词典』(1990)，商务印书馆

『现代汉语八百词』(2004)，吕叔湘 主编，商务印书馆

Abstract

A Study on the function and Emphatic Construction of Modern Chinese Adverb “都”

Kim, Jong-hyuk

The modern Chinese adverb ‘dou(都)’ has two kinds of basic meaning. The first meaning of ‘dou(都₁)’, as a scope adverb, comprehensively represents actions, behaviors or properties which all entities or phenomena embraced within the defined scope have in common. The second meaning of ‘dou(都₂)’ has emerged through grammaticalization during the transitional process in meaning. The main semantic function of ‘dou(都₂)’ is ‘emphasis’, and it may symbolize the abnormality of a certain behavior, phenomenon or property, and may manifest a great difference between expectation and reality. ‘dou(都₂)’ also shows the subjective cognition of a speaker on the volume of an object, time or degree. While ‘dou(都₁)’ provides an objective description, ‘dou(都₂)’ is one of the methods which shows an subjective representation. ‘dou(都₂)’ not only represents the subjective view of a speaker in ‘lian(连)’ Construction in modern Chinese, but also has the same function in ‘ba(把)’ Construction and ‘bi(比)’ Construction, where, by reducing the typical disposal function of ‘ba(把)’ Construction or the comparison function of ‘bi(比)’ Construction, it expresses a variety of subtle nuances in terms of exaggeration and modification in the sentence.

Key words : adverb ‘dou(都₂)’, emphasis, ‘lian(连)’ Construction, ‘ba(把)’ Construction, ‘bi(比)’ Construction

투 고 일 : 2016. 1. 10. / 심 사 일 : 2016. 1. 15.~ 2016. 2. 15. / 게재확정일 : 2016. 2. 16.